발 간 사

먼저 35만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가 문형 사전의 형태로 세상에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수화는 청인들이 사용하는 국어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흔히, 청인들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이 국어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손짓으로 옮겨 표현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수화가 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청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한국어식 문법 수화는 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부분이 많아 청각장애인들의 자연 수화와는 달리 표현 양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배우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농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인 교사의 수업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낯선 국어식 수화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문형 사전은 청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쓰고 있는 수화의 원칙을 스스로 밝혀내고 다양한 수화 형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낸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화 문형 사전으로 농인들이 청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뜻 깊은 일에 국립국어원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수화 문형 사전을 발간하기 위해서 국어 문법책을 늘 옆에 끼고 밤낮없이 고민해 오신 김승국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장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회의 때마다 달려와 꼼꼼히 검토해 주신 여러 표준수화규범 제정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

국립국어원장 이 상 규

인 사 말

우리 농인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음성 언어인 말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각-운동 체계인 수화를 생성하고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은 음과 뜻을 표시하는 문자를 만들어 말을 적어 남기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우리 농인은 수화의 문자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수화를 적어 남기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아닌 말을 적는 청인의 문자를 배워 적는 일을 해 왔습니다.

문자 언어는 우리 농인에게는 외국어를 배우기보다 더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인들은 수화로 발전시킨 생각이나 학식을 적어서 남기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인은 우리의 언어인 수화에 관한 연구도 수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화로 한 연구 결과를 청인이 입으로 전하듯이 손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말처럼 사라져버리는 수화의 특성 때문에, 글처럼 오래 남길 수 없었고 계승 발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농인이 대를 이어가며 발전시킨 수화를 모아 표준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으며, 수화에 특유한 문형을 밝히고 발전시키는 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수화의 단어를 표준화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한국수화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우리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의 문장을 모아 분석하여 농인의 순수한 수화의 문장 구성 유형을 밝히고 그것들로 「한국수화 문형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연구로 수화가 언어임을 밝히는 일이며, 정부가 수화를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수화에 관한 더 많은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러한 연구가 이어져서 우리 농인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더욱 발전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농인을 대표하여,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를 보조 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한국수화 문형사전」을 편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한국수화 문형사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승국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3월 31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

한국수화 문형 연구

머 리 말

문화관광부는 '한국표준수화규범'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국농아인협회를 보조 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11월 30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립국어원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구성하였던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수화 연구 및 수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수화 사전 편찬의 기초 연구로 한국수화의 어원을 연구하고, 「일본어-수화사전」과 「농인의 국제수화」를 번역하고,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을 편찬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화 단어를 모아 표준화하였다.

표준화한 수화 단어들로 「한국수화사전」을 편찬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수화 단어 표준화 사업이 끝난 후에 하기로 했던 수화 문장의 종결 표현을 포함하는 한국수화 문형을 밝히는 연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우선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화 문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수화 문장의 성분과 성분의 구성 유형을 찾아 정리하고, 문장 성분의 배열순서(어순)와 문장 성분의 재료를 밝히기로 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수화 문형 연구는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끝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한국수화 문형사전」이란 이름으로 내 놓게 되었다. 이 사전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5년 동안 제 2단계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1)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교육 사업, (2) 수화 애국가 표준화 사업, (3) 한국수화와 북한 수화 비교 연구 사업, (4) 수화 교육용 도서 개발 및 수화 교육 사업 등은 물론 기타 수화 관련 연구 사업에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수화의 언어 능력과 사용 능력을 기르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수화 문법 지식을 기르는 데도 활용될 것이다.

수화 문장의 조사, 수화 문장의 검토 및 수정, 수화 문장의 분석 등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수화 문장의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

1. 한국수화 문장의 조사

수화 문형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수화 문장을 조사하였다. 수화 문장의 조사는 촬영 조사와 면접 조사로 하였다.

(1) 촬영 조사

1) 촬영 대상

수화 문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농인의 강연·설교·담화 등의 장면을 촬영하였다. 촬영 대상은 수화 능력이 우수하고 수화와 음성 언어를 병용하지 않는 농인으로 하였다. 강연이나 설교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대상으로 농인 단체의 임원 5명과 목사 2명을 선정하였으며, 담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11명, 강원권에서 6명, 충청권에서 10명, 호남권에서 14명, 영남권에서 17명, 계 58명을 선정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시도 협회에서 추천 받아 선정한 촬영 대상의 연령은 20-30대 34명, 40-50대 17명, 60-70대 7명이었으며, 이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8명, 중등학교 졸업 33명, 대학 재학 이상 17명이었다.

2) 촬영

강연 장면은 강사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 촬영하고, 설교 장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담화 장면의 촬영은 문장의 성분과 문법요소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주제를 폭 넓게 주고,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선정한 주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기타(혼례, 상례, 제례, 설, 단오, 추석) 등이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불특정 수화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행사장, 경기장, 기타 등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담화 장면의 촬영은 담화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하였다. 담화 조는 2인 1조로 편성하였다. 각 조는 권역별 조가 되게 하였으며, 편성된 조는 남성 조 11개, 여성 조 9개, 남녀 혼성 조 9개, 계 29개 조였다. 촬영 시간은 조별 30분으로 하였으며, 촬영은 촬영 대상이 촬영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할 때까지 약 30분간 기다렸다가 하였으며, 촬영의 위치는 화자의 중앙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손 쪽으로 30도 되는 위치로 하였다.

3) 수화 문장의 전사 및 번역

수화 문장을 한글로 전사하였다. 전사자가 전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녹화한 수화를 문장 단위로 끊고, 녹화한 속도를 2배로 늘렸다. 전사자는 녹화 자료를 한글로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전사는 수화 능력과 국어 능력이 우수하여 전사와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농인과 건청인 14명을 추천 받아 이들에게 의뢰하였다.

(2) 면접 조사

1) 면접 대상

촬영 조사만으로는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5)에서 편찬한「한국수화사전」에 들어있는 형용사, 동사 또는 부사로 구성되는 문장을 모두 조사하기 어렵고, 그러한 단어로 구성되는 수화 문형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았으며, 대화 중에 사용될 수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화 문장을 촬영으로 조사하면서 면접 조사도 하였다. 면접 조사에는 주로「한국수화사전」(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5)에 들어있는 동사·형용사·부사와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2차년도) 최종 보고서」(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2001)에 들어있는 용례 문장을 활용하였다.

면접 조사는, 한국어식 수화가 아니라 농인의 순수한 수화를 사용하며 농학교 교사 경력을 가진 농인 1명을 주 대상으로 72회 하였으며, 수화 문장의 적절성을 알고 싶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화를 수화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때마다 만날 수 있는 농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108회 하였다.

2) 면접

면접 조사는 피면접자에게 단어나 문장을 수화통역사의 통역으로 주고, 준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수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준 문장을 농인의 순수한 수화로 표현하게 하고 그 문장을 국어로 적는 방법으로 하였다. 피면접자가 수화통역사의 통역으로 주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단어나 문장을 한글로 적어 주었다.

2. 한국수화 문장의 검토 및 수정

면접 조사로 조사한 문장은 4,369개 문장이었으며, 촬영 조사로 조사한 문장은 7,100개 문장이었다.

이들 11,469개 문장을 상호 비교하여 동일한 문장을 찾아내어 삭제하고, 주어나 목적어만 다르고 나머지가 같은 문장을 찾아내어 삭제하였다. 이러한 일은 면접 조사에 참여했던 2명과 수화 문장 조사 실무자 2명이 하였다.

삭제하고 남은 문장은 4,711개 문장이었는데, 이들을 한글로 적은 수화 문장과 각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국수화 문장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토위원에게 주고 (1) '수화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면 이를 수정하여 '수화 문장의 수정 난'에 적고, (2) 번역문이 잘못된 문장이면 이를 수정하여 '번역문의 수정 난'에 적도록 하였다.

수화 문장과 번역 문장의 검토는,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 협회와 23개 농학교에 검토원 추천을 의뢰하고 이들 단체에서 추천한 14명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한 9명과 한국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 중 농인 위원 11명과 청인 위원 1명에게 의뢰하였다. 시도 협회와 농학교에서 추천한 검토위원은 농학교 고등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인으로서 한국어식 수화가 아닌 순수한 농인의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8명과 농인의 청인 가족 1명이었다.

검토위원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추진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검토위원이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를 요구한 수화문과 번역문을 검토하고, 검토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수화 문장과 번역 문장을 수화 문장의 그림과 함께 추진위원 중 농인 위원에게 주고 다시 검토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한국수화 문형사전」에 수록할 수화 문장과 번역 문장을 확정하였다.

3. 수화 문장의 분석

「한국수화 문형사전」에 수록하기로 확정한 문장은 4,483개 문장이다. 수화 문장의 구성 유형(수화 문형)을 밝히기 위하여 이어진 문장을 포함하여 모두 5,028개 문장을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였으며, 문장 성분의 재료를 분석하였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덧셈표로 연결하고, 각 성분 뒤에는 문장 성분의 재료를 소괄호나 중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문장 성분의 재료인 종결 표정은 그 앞에 빗금을 넣고, 그 뒤에 표정의 종류를 소괄호로 묶어 제시하였으며, 문장 성분의 재료인 시제 표지는 그 뒤에 시제와 시제 표시 단어를 소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수화 문장을 분석하며 문장 종결의 방식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한국수화 문장의 성분과 구성

(1) 수화 문장의 성분

한국수화 문장의 분석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과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문장에서 독립해 있는 독립 성분 등이 있으며, 주성분에는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의 부속 성분에도 한국어 부속 성분에 있는 관형어가 있으나 관형어는 체언과 결합하여 명사구가 되거나 명사절이 되어 다른 문장 성분의 재료가 되므로 여기서는 문장 성분으로 내 놓지 않았다.

(2) 수화 문장의 구성

한국수화 문장의 분석에서는 문장 성분의 구성에 일정한 유형(문형)이 있으며, 문장 성분의 배열에 일정한 순서(어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을 제외하고 주성분만으로 문형을 정리했더니 수화 문장에는 (1) 주어는 없고 서술어만 있는 무주어문, (2)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 (3)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 (4)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에 무주어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형용사 '무성하다'는 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다'가 되므로 주어를 가질 수 없고, '집이 무너지다'는 수화에서는 절이 아니라 단어인데, 단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따로 주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에는 서술어가 주어 앞에 놓이는 문장과 주어 뒤에 놓이는 문장이 있다. 서술어가 주어 앞에 놓이는 문장은 '이기다+ 누구'와 같이 서술어 뒤에 의문사가 놓이는 의문문이다. 서술어가 주어 뒤에 놓이는 문장에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나 주어를 가상할 수 있는 가상 주어를 가지는 문장도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되는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구성된 문장도 있고, 목적어+ 주어+ 서술어 순으로 구성된 문장도 있으며, 목적어+ 서술어+ 주어 순으로 구성된 문장도 있다. 이러한 문장에는 가상 주어나 가상 목적어를 가진 문장이 있으며, 가상 주어와 가상 목적어를 같이 가진 문장도

있다.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되는 문장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 문장만이 있으며,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과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가상 주어만 있는 문장도 있다.

< 표 1 > 수화의 문형과 용례

문 형	용 례
서술어	예 무성하다 [나무가 무성하다.] 예 집이 무너지다 [집이 무너지다.]
서술어+ 주어	예 이기다+ 누구/묻는 표정 [누가 이겼어?]
주어+ 서술어	예 어린이+ 마음+ 순수하다+ 진실하다 [어린이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하다.] 예 그+ 걸어가다+ 되돌아오다 [그는 가다가 되돌아왔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예 나+ 영어+ 모르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 예 주+ 책+ 가져가자 [책을 가져가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 어머니+ 승인하다+ 결혼+ 후+ 떨어지다+ 살다 [어머니께서 결혼하면 따로 살라고 허락하셨다.]
목적어+ 주어+ 서술어	예 이것+ 나+ 하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 예 와이셔츠+ 나+ 다리다 [와이셔츠는 내가 다린다.]
목적어+ 서술어+ 주어	예 그+ 살인하다+ 누구 [그를 살인한 사람은 누구야?]
주어+ 보어+ 서술어	예 얼음+ 물+ 되다 [얼음이 물이 된다.] 예 너+ 보통+ 사람+ 아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주성분만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나 독립 성분을 가진 수화 문장을 보면, 부속 성분인 부사어는 주어(또는 가상 주어) 앞에 놓이기도 하고 목적어(또는 가상 목적어) 나 보어 앞에 놓이기도 하며, 서술어의 앞이나 뒤에 놓이기도 한다. 부사어는 한 문장에서 한번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 또는 세 번 계속해서 나타나거나 나뉘어 나타나기도 한다.

< 표 2 > 부사어를 포함하는 수화 문형과 용례

문 형	용 례
부사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예 이곳저곳+ 잡초+ 많이+ 나다 [이곳저곳에 잡초가 많이 나 있다.]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예 나+ 너+ 서로+ 좋아하다+ 되다 [나는 너와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주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예 그+ 나+ 학업+ 포기하다+ 편지+ 보내다 [그는 나에게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주어+ 부사어+ 보어+ 서술어	예 나+ 이제+ 사람+ 되다 [저는 이제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목+ 부사어+ 서술어	예 주+ 목+ 벽+ 걸다 [벽에 걸었다.]
주어+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예 그+ 오랫동안+ 타향+ 참혹하다+ 생활하다+ 오다 [그는 오랫동안 타향에서 참혹한 생활을 해왔다.]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예 그+ 필경+ 모두+ 잃다+ 아마 [그는 필경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 부사어+ 부사어	예 농아인+ 축구+ 올림픽+ 이후+ 발전하다+ 많이+ 아마 [농아인 축구는 올림픽 이후에 많이 발전한 것 같다.]

독립 성분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과 따로 떨어져 문장 앞에 놓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어를 앞세우는 문장에는 주어(또는 가상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과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었다, 이러한 문장에는 부속 성분인 부사어를 포함하는 문장도 있었다.

< 표 3 > 독립어를 포함하는 수화 문형과 용례

문 형	용 례
독립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독립어, 주어+서술어	예 천만에+아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독립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예 글쎄+무엇+할 수 있다/고개·의문 표정 [글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문장 성분의 재료

한국수화 문장 분석에서는 수화 문장 성분이 되게 하는 재료가 한국어 문장 성분의 재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성분의 재료를 정리하면서 '위하다, 대하다, 따르다' 등으로 끝나는 안긴문장이나 '할까봐'로 끝나는 절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에는 그 문장을 부사절로 처리하였으며, 그밖에 주어와 서술어를 갖는 안긴문장은 부사어로 쓰이더라도 명사절로 처리하였다. 한국수화에서는 한국어에서 하듯이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 쓰지 않기 때문이다. 관형절도 관형절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장이나 관형절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놓이므로 관형절임이 분명하여 명사절로 처리하지 않고 관형절로 처리하였다.

수화 문장 성분의 재료를 성분별로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어

수화 문장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구 등이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며, '도, 마다' 같은 보조사가 쓰일 때에만 조사와 결합되어 주어로 쓰이고, 주어가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며, 그 성분의 수화 동작을 하며 동시에 관련 표정인 종결 표정을 지어야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종결 표정과 결합되어 주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에서는 동사, 형용사, 동사구도 활용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주어로 쓰이고 부사와 동사가 결합되어 주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수화 문장에서 동사·동사구·형용사를 명사처럼 만들지 않고 그 기본형을 명사처럼 쓸 수 있게 수화의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 표 4 > 한국수화 주어의 재료와 용례

재 료	용 례
명사	예 **집**+ 학교+ 가깝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명사구	예 **신청하다+ 사람**+ 백+ 가깝다 [신청한 사람이 백 명에 가깝다.]
명사절	예 일+ 가지다+ 목마르다 [**직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명사구+ 조사	예 **집+ 집+ 마다**+ 태극기+ 게양하다+ 끝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명사/종결 표정	예 언제+ 부터+ **휴가/묻는 표정** [언제부터 휴가입니까?]
대명사	예 **나**+ 마음+ 가볍다 [나는 마음이 가볍다.]
대명사구	예 **너+ 나**+ 호흡+ 가깝다 [너와 나는 가깝다.]
대명사+ 조사	예 **너+ 도**+ 가다+ 나+ 또+ 가다+ 되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대명사/종결 표정	예 이기다+ 누구/묻는 표정 [누가 이겼어?]
수사	예 **둘**+ 밀접하다 [두 사람은 밀접하다.]
동사	예 **구기다**+ 되다 [구김이 간다.]
동사구	예 **영원히+ 살다**+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
형용사	예 **아프다**+ 줄다 [통증이 가라앉았다.]
부사+ 동사	예 영원히+ 살다+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

(2) 목적어

수화 문장에서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구 등이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며, '만, 뿐' 같은 일부 보조사가 쓰이거나 '다만' 같은 부사가 쓰일 때에만 조사나 부사와 결합되어 목적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에서는 동사, 형용사, 동사구, 부사 등도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수화 문장에서 용언, 동사구, 부사 등을 명사처럼 만들지 않고 그 기본형을 명사처럼 쓸 수 있게 수화의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 표 5 > 한국수화 목적어의 재료와 용례

재 료	용 례
명사	예 우리+ **생활**+ 개선하다+ 끝 [우리는 생활을 개선하였다.]
명사구	예 그+ **새롭다+ 땅**+ 개척하다+ 끝 [그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다.]
명사절	예 어머니+ **늘+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어머니는 늘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계시다.]
명사+ 부사	예 그+ **술+ 다만**+ 생각하다 [그는 술만 생각한다.]
명사+ 조사	예 아버지+ **형+ 만**+ 칭찬하다 [아버지는 형만 칭찬하신다.]
대명사	예 너+ **나**+ 경멸하다 [너는 나를 경멸했다.]
대명사구	예 **불효하다+ 나**+ 용서하다+ 주세요 [불효한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수사	예 나+ 매달+ 만+ 예금하다 [나는 매달 만원씩 예금한다.]
동사	예 나+ **답하다**+ 얼버무리다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동사구	예 **욕하다+ 싶다**+ 억제하다+ 못하다 [욕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형용사	예 그+ **괴롭다**+ 잘+ 견디다 [그는 괴로움을 잘 견딘다.]

재　　료	용　　례
형용사+ 형용사	예 **옳다+ 틀리다**+ 알다 [옳고 그름을 안다.]
부사	예 아버지+ 설득+ 할아버지+ **마음대로**+ 허락하다 [아빠의 설득으로 할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셨다.]

(3) 보어

수화 문장에서는 명사와 명사구가 단독으로 보어동사(되다)나 보어형용사(아니다)가 요구하는 보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한국수화 보어의 재료와 용례

문　　형	용　　례
명사	예 나+ 이제+ **사람**+ 되다 [나는 이제야 사람이 되었다.]
명사구	예 나+ 회사+ 그만두다+ **나+ 잘못**+ 아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4) 서술어

수화 문장에서는 동사, 동사구, 형용사, 형용사구,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형용사가 활용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서술어로 쓰이며, 몇 개의 과거형 동사(갖추었다, 떠나갔다, 보았다, 자라왔다, 틀렸다) · 명령형 동사(가져가라, 오라, 주세요, 해, 하여라, 해봐) · 청유형 동사(가져가자, 두고 보자, 보자) 와 서술절이 서술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 문장에서는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 것들도 서술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 · 명사구 · 명사절 · 수사 · 부사 · 부사구 등도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화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 기본형이 동사나 형용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성분의 재료들은 시제 표지(과거, 진행, 미래)나 종결 표정과 결합되어, 대명사는 조사(부터)와, 형용사는 수사와 결합되어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한국수화 서술어의 재료와 용례

문 형	용 례
동사	예 그들+ 대화+ **거부하다** [그들은 대화를 거부한다.]
보어동사	예 얼음+ 물+ **되다** [얼음이 물이 되다]
동사구	예 그+ 회사+ **경영하다+ 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동사+ 동사	예 그+ 자기+ 합격하다+ **자랑하다+ 자랑하다** [그는 자기가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동사+ 시제 표지	예 그+ 다리+ **건너오다+ 중(中)** [그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다.]
동사구+ 시제 표지	예 기계+ 힘+ **실험하다+ 해보다+ 끝** [기계의 성능을 실험해 보았다.]
동사+ 동사+ 시제 표지	예 그+ 교도소+ 생활+ 중+ 자유+ 소중하다+ **배우다+ 깨닫다+ 끝** [그는 교도소 생활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고 깨달았다.]
동사+ 시제 표지/종결 표정	예 **먹다+ 끝/묻는 표정** [식사하셨습니까?]
동사/종결 표정	예 너+ **정신 차리다/요청 표정** [너 정신 차려]
동사구/종결 표정	예 회사+ 까지+ **걷다+ 가다/하자 표정** [회사까지 걷자.]
동사+ 동사/종결 표정	예 빵+ 하나씩+ **나누다+ 먹다/하자 표정** [빵을 하나씩 나누어 먹자]
형용사	예 바람+ **거세다** [바람이 거세다.]
보어형용사	예 나+ 회사+ 그만두다+ 나+ 잘못+ **아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형용사구	예 할아버지+ 등+ **굽다+ 되다** [할아버지의 등이 굽어있다.]
형용사+ 형용사	예 한국+ 남+ 해안+ 양어업+ **적절하다+ 적합하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양어업에 적합하다]

문 형	용 례
형용사+ 형용사+ 수사	예 농아인+ 청인+ 결혼+ **좋다+ 나쁘다+ 둘** [농아인과 청인의 결혼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형용사+ 시제 표지	예 선생+ 연락+ 없다+ 갑자기+ 오다+ **당황하다+ 끝** [선생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다.]
형용사/종결 표정	예 오다+ **딱딱하다/짜증 표정** [왜 이렇게 안와]
서술절	예 나+ **그+ 부탁+ 거절하다**+ 어렵다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
서술절/종결 표정	예 그+ **실력+ 괜찮다/고개 끄덕** [그는 실력이 괜찮은 편이다.]
명사	예 옷+ **여러 가지** [옷이 다양하다]
명사+ 시제 표지	예 여동생+ **심장병+ 중** [여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
명사/종결 표정	예 그+ 그만두다+ **진짜/묻는 표정** [그가 설마 그만두기야 하겠나?]
명사구	예 그+ **거만하다+ 사람** [그는 거만한 사람이다.]
명사절	예 그+ **물건+ 값+ 깎다+ 대장** [그는 물건 값을 잘 깎는다.]
대명사+ 조사	예 **언제+ 부터**+ 휴가/종결 표정(묻는 표정) [언제부터 휴가입니까?]
대명사/종결 표정	예 먹다+ 싶다+ **무엇/묻는 표정**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수사	예 나이+ **삼십**+ 결혼하다+ 아직 [서른 살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수사/종결 표정	예 당신+ 진실하다+ 친구+ 세다+ **몇/묻는 표정** [당신은 진실한 친구를 몇 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부사	예 나+ 아침+ 점심+ **아직** [나는 아침과 점심을 굶었다.]
부사/종결 표정	예 과거+ 모습+ **그대로/눈·입 동작**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문 형	용 례
부사구	예 그+ 걷다+ **빨리+ 빨리**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서는 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진 구만을 동사구나 형용사구로 표시하였다. 수화에서는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으로 쓰이지 않는 것도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보조 용언 다음과 같다.

보조용언: 가능하다, 가리키다, 겪다, 되다, 두다, 만들다, 말다, 못하다, 미수하다, 받다, 보다, 부탁하다, 뻔하다, 쉽다, 시작하다, 시키다, 싶다, 아니다, 아니하다, 안되다, 없다, 엇갈리다, 오다, 이것이다, 있다, 주다, 주세요, 필요하다, 하다, 하여라, 한적 없다, 한적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합격하다, 해, 해보다, 해봐

(5) 부사어

수화 문장에서는 부사·부사구·부사절이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고, 부사나 부사구가 종결 표정과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명사구·명사절·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부사 등도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이고, 명사·명사구·대명사·형용사·부사·부사구 등이 종결 표정과 결합되어, 명사·명사구·대명사·동사가 조사(까지, 께, 더러, 또는, 마다, 보다, 부터, 뿐, 처럼, 커녕)과 같이 결합되어 부사어로 쓰이고, 명사·수사·동사가 같거나 다른 품사와 결합되어 부사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어가 아닌 것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도 수화 문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화 문장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 기본형이 부사처럼 슬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 표 8 > 한국수화 부사어어의 재료와 용례

문 형	용 례
부사	예 나+ 딸+ **건강히+ 잘**+ 자라다 [우리 딸애는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부사구	예 단점+ **조금+ 조금**+ 바꾸다/하자 표정 [단점을 서서히 고쳐나가자.]

문 형	용 례
부사절	예 원숭이+ **잡히다+ 할까봐**+ 나무+ 도망치다 [원숭이가 잡힐까봐 나무로 도망친다.]
부사/종결 표정	예 무엇+ 생기다+ 연락하다+ **꼭/다짐 표정**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라.]
부사구/종결 표정	예 일어나다+ 어서+ **어서/시키는 표정** [어서 일어나라.]
동사	예 **금주하다**+ 의사+ 말하다 [의사가 나에게 금주하자고 한다.]
동사구	예 사람+ **먹다+ 없다**+ 일주일+ 견디다+ 가능하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일주일을 견딜 수 있다.]
동사+ 조사	예 나+ **먹다+ 보다**+ 잠+ 급하다 [나는 먹는 것 보다 잠이 급하다.]
동사+ 형용사	예 뱀+ **보다+ 사소하다**+ 징그럽다 [뱀은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명사	예 아버지+ **일본**+ 가다+ 끝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셨다.]
명사구	예 그+ **마지막+ 끝**+ 얼굴+ 나타내다+ 없다 [그는 끝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명사절	예 나+ 항상+ **너+ 고맙다**+ 생각하다 [나는 네가 항상 고맙게 생각된다.]
명사+ 명사	예 나+ **낚시+ 비교**+ 축구+ 좋다 [나는 낚시보다 축구가 더 좋다.]
명사+ 부사	예 피서하다+ 위하다+ **아이+ 함께**+ 강원도+ 다녀오다 [피서하기 위해 아이와 같이 강원도에 다녀왔다.]
명사+ 부사+ 명사	예 나+ **버스+ 또는+ 전철**+ 학교+ 가다 [나는 버스 또는 전철을 이용하여 학교에 간다.]
명사+ 조사	예 **입+ 보다**+ 실천+ 중요하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명사+ 형용사	예 나+ 그+ **선생+ 같다**+ 존경하다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존경한다.]
명사구+ 조사	예 그+ 사장+ **말단+ 직원+ 부터**+ 시작하다 [그 사장은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다.]

문 형	용 례
명사구/종결 표정	예 천장+ 칠하다+ 색+ **무엇/묻는 표정** [천장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대명사	예 나+ **그**+ 과거+ 고백하다+ 끝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고백했다.]
대명사+ 조사	예 **어디+ 까지**+ 가다/종결 표정(묻는 표정) [어디까지 가십니까?]
대명사/종결 표정	예 개학하다+ **언제/묻는 표정** [언제 개학하니?]
수사	예 신청하다+ 사람+ **백**+ 가깝다 [신청한 사람이 백 명에 가깝다.]
수사+ 수사	예 그녀+ **이틀+ 하나**+ 오다+ 사정+ 하소연하다 [그녀가 하루건너 찾아와서 하소연한다.]
수사+ 의존명사+ 형용사	예 월드컵+ 경기+ 호주+ 일본+ **셋+ 대+ 없다**+ 이기다 [월드컵 경기에서 호주가 일본을 3:0으로 이겼다.]
형용사	예 나+ **가난하다**+ 자라왔다 [어려서부터 나는 가난하였다.]
형용사/종결 표정	예 당황하다+ 말다+ **침착하다/요청 표정**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6) 독립어

수화 문장에서는 감탄사와 명사가 독립어로 쓰이고, 감탄사와 종결 표정의 결합형도 독립어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 > 한국수화 독립어의 재료와 용례

문 형	용 례
감탄사	예 **싸구려**+ 공짜+ 같다 [싸구려 ! 거저 줍니다.]
명사	예 **선생**+ 나+ 잘못하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형	용 례
감탄사/종결 표정	예 **안녕/안녕 표정** [안녕히 가세요.]

2. 한국수화 문장의 종결 방식

한국수화 문장을 분석하면서 문장의 종결 방식도 분석하였다. 문장 종결 방식의 분석에서는 한국수화 문장이 한국어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문장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뉘고, 각각의 종결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뒤에 덧셈표(+)로 연결한 문장은 수화 문장이며 대괄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은 수화의 번역문이다.

(1) 평서문

수화자(手話者)가 시화자(視話者)에게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화 평서문은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어, 서술어의 동작을 하며 동시에 짓는 종결 표정, 시제 표지(과거, 진행, 미래) 등으로 종결된다. 조사된 평서문의 구체적인 종결 방식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동사의 기본형

예 그+ 나+ **속삭이다.**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2) 동사의 과거형(갖추었다, 떠나갔다, 보았다, 자라왔다, 틀렸다)

예 버스+ 지금+ **떠나갔다**

[버스가 막 떠나갔다.]

3) 동사구

예 나+ 그+ 부탁+ **거절하다+ 못하다**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4)보어 동사

예 형+ 음악가+ **되다**

[형은 음악가가 되었다.]

5) 형용사의 기본형

예 기계+ 소리+ **이상하다**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

6) 형용사구

예 누나+ 외국+ 생활+ **익숙하다+ 되다**

[누나는 외국 생활에 익숙해졌다.]

7) 보어 형용사

예 나+ 회사+ 그만두다+ 나+ 잘못+ **아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8) 명사

예 그+ 농 학교+ **교사**

[그는 농 학교 교사다.]

9) 대명사

예 책상+ 있다+ 연필+ 사라지다+ **어디**

[책상에 있던 연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10) 수사

예 말+ 되풀이하다+ **셋**

[똑같은 말을 세 번 되풀이하였다.]

11) 부사

예 그+ 걷다+ **빨리+ 빨리**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12) 시제 표지(과거. 진행. 미래)

예 할머니+ 병원+ 입원하다+ **시제표지(과거: 끝)**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2) 감탄문

수화자가 시화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수화의 감탄문은 서술어의 동작을 하며 동시에 짓는 종결 표정이나 감탄의 몸짓을 가진 단어로 종결되며, 한국어와 달리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따로 없다. 조사된 수화 감탄문의 구체적인 종결 방식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감탄의 몸짓을 가진 단어

예 아이고+ **춥다.**

[아이고 ! 추워라.]

2)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눈 · 입 동작

예 과거+ 모습+ 그대로/**종결 표정(눈 · 입 동작**)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3)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뜨며/고개 · 눈 동작

예 이것+ 너+ 기대하다+ 같다/**종결 표정(고개 · 눈 동작**).

[이것이 네가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이로구나.]

4) 기분이 좋아서 웃는 표정을 지으며/좋은 표정

예 오늘+ 달+ 참+ 밝다/**종결 표정(좋은 표정**)

[오늘은 달도 참 밝구나.]

(3) 의문문

수화자가 시화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수화의 의문문은 표정이나 물음표(?)로 종결된다. 조사된 수화 의문문의 구체적인 종결 방식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의문 표정

예 늦다+ 왜**/종결 표정(의문 표정)**

[왜 늦었니?]

2)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고개·의문 표정

예 글쎄+ 무엇+ 할 수 있다**/종결 표정(고개·의문 표정)**

[글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묻는 표정을 지으며/묻는 표정

예 너+ 감기①+ 걸리다**/종결 표정(묻는 표정)**

[너는 감기에 걸렸니?]

4) 물음표(?)

예 그+ 그만두다+ 진짜+ **물음표(?)**

[그가 설마 그만두기야 하겠나.]

(4) 명령문

수화자가 시화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은 '말다'와 같은 부정 용언이 사용될 수 있으며, 명령형의 동사, 동작이 명령 또는 시키는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 명령형 종결 표정 등으로 종결된다. 조사된 수화 명령문의 구체적인 종결 방식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말다²

예 부모+ 기대다②+ **말다**

[부모에게만 기대지 마라.]

2) 부탁하다

예 붕대+ 갈다²+ 갈다²+ **부탁하다.**

[붕대를 자주 갈아주세요.]

3) 동사의 명령형: 가져가라, 오라, 주세요, 해, 하여라, 해봐

예 무엇+ 생기다+ 연락하다+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4) 동작이 명령 또는 시키는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

예 나+ **주목하다**

[나를 주목하세요.]

5) 바라보며 다짐하는 표정을 지으며/다짐 표정

예 무엇+ 생기다+ 연락하다+ 꼭**/종결 표정(다짐 표정)**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꼭 연락해라.]

6) 눈을 크게 뜨며/눈 동작

예 오늘+ 끝+ 끝**/종결 표정(눈 동작)**

[이제 그만해.]

7) 명령하는 표정을 지으며/명령 표정

예 계속+ 전진하다**/종결 표정(명령 표정**)

[계속 전진하라.]

8) 시키는 표정을 지으며/시키는 표정

예 장애물+ 치우다**/종결 표정(시키는 표정**)

[장애물을 치워라.]

9) 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을 지으며/요청 표정

예 빙판길+ 조심하다/**종결 표정(요청 표정)**

[빙판길을 조심하여라.]

10) 좌우로 둘러보며 묻는 표정을 지으며/좌우 묻는 표정

예 찬성하다+ 거수하다/**종결 표정(좌우 묻는 표정)**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5) 청유문

수화자가 시화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은 청유형의 동사, 명사(예 끝), 부사(예 그만) 등의 반복 동작, 청유형 종결 표정 등으로 종결된다. 조사된 수화 청유문의 구체적인 종결 방식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부탁하다

예 가라앉다[2]+ **부탁하다**

[마음을 가라앉히자.]

2) 동사 청유형(가져가자)

예 책+ **가져가자** ['가져가다'의 청유형]

[책을 가져가자.]

3) 그만+ 그만

예 이야기+ **그만** + **그만**

[이야기를 그만 하자.]

4) 끝+ 끝

예 이야기+ **끝+ 끝**

[이야기를 그만 하자.]

5) '어때' 또는 '그러자'고 할 때 짓는 표정을 지으며/어때 표정

예 늙다+ 사람+ 자리+ **양보하다/종결 표정(어때 표정)**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6)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을 지으며/하자 표정

예 나가다+ **놀다/종결 표정(하자 표정)**

[나가서 놀자.]

7)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하자는 표정을 지으며/고개·하자 표정

예 모두+ 철망+ **없애다/종결 표정(고개·하자 표정)**

[모든 철망을 없애자.]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수화의 문장 성분이 한국어의 문장 성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화 문장 성분의 구성 유형은 한국어 문형과 다르며, 수화 문장의 종결 표현도 한국어 문장의 종결 표현과 다르고, 수화 문장 성분의 재료도 한국어 문장 성분의 재료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어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수화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로 수화 특유의 문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화가 형식과 내용을 가진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화 문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화 단어에 관한 연구와 수화 문형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하며, 이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광의의 문법 연구에는 포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단어에 알맞은 수화 단어를 찾아 표준화하는 연구도 계속해야겠지만 수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하는 연구도 해야 한다. 수화의 단어 중에는 한 가지 문장 성분의 재료로만 쓰이지 않고 다른 성분의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이며, 수화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수화 단어의 품사가 달라진다면 문장 성분의 재료가 달리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수화 문장과 다른 문장으로 다른 문형을 가진 문장이 다른 연구에서 발견된다면 이 연구에서 밝혀진 문형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문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화 문장을 분석하는 입장을 달리하면, 이 연구에서 밝힌 문형과 다른 문형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문형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

수화 단어의 표준화 연구와 수화 문형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문형이 그대로 또는 수정되어 보편타당한 문형으로 공인되기 바란다.

인 사 말

한국수화 문형을 연구하고 그 결과 보고서로 '한국수화 문형사전'을 내놓으면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형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님, 사전 편찬 실무에 헌신한 오진영 대리, 행정·검토·전사·교정·인쇄 등으

로 사전 편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권재일 교수님의 조언과 미간행 원고 「국어의 문형과 문형 연구의 흐름」, 남기심·고영근 두 분의 공저 「표준 국어문법론」(1985)이 수화 문장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3월 31일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승국

한국수화 문형사전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

위원장 김승국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부위원장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김기범 전 서울농학교 교사
위원 윤우중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위원 손천식 영락농아인교회 담임목사
위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위원 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 부장
위원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 부장 직무대리
위원 강주해 갈로뎃대학교 교목
위원 김영관 전 춘천계성학교 교무부장
위원 장진석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원 장진권 서울농학교 교사
위원 김칠관 전 인천성동학교 교감
위원 윤병천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원 이율하 춘천동원학교 교사
위원 안석준 수화통역사
위원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 회장
위원 권석현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총무부장

간사 최혜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간사 오진영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정책사업부 대리

◇ 한국수화 문형사전 편찬 실무 추진위원

주신기. 안세준. 김기범. 윤우중. 변승일. 김승국

◇ 한국수화 문형 검토

권재일

◇ 한국수화 문장 검토

주신기. 안세준. 김기범. 윤우중. 강주해. 김영관. 손천식. 장진석, 장진권. 권석현. 이대섭.

변승일. 김승국(이상 추진위원). 이계택(전 추진위원).

엄미숙(한국재활복지대학교 강사). 김병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이영호(전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정책사업부장). 김정환(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 중랑지부장). 안영회(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 서초지부장). 박광택(부산배화학교 교사). 신현우(대구영화학교 교사). 최인옥(춘천계성학교 교사)

◇ 한국수화 문장 전사

강주해. 김기범. 김동환. 김윤정. 김정환. 김지인. 변강석. 안영회. 안태희. 엄미숙. 윤병천. 이미선, 정택진. 최양희.

◇ 한국수화 그림과 문형 교정

안석준. 이형미

일 러 두 기

한국수화 문형사전의 미시 구조

1. 첫째 칸에는 표제어와 뜻풀이를 넣었다.
2. 둘째 칸에는 수화 문장의 그림을 넣고 그림 밑에 수화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3. 수화 문장 밑에 수화 문장의 번역문을 넣었다.
4. 번역문 밑에 수화 문장의 문형을 넣었다.

한국수화 문형사전의 표제어

표제어의 선정

문형사전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서술어인 동사, 보어동사, 형용사, 보어형용사 등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2.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의존명사, 수사, 부사 등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3.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이나 뒤 절의 서술어 중에서 하나만을 선정하였다.
4. 안긴문장의 서술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5. 관형어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6.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중 일부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7. 일부 독립어와 부사어로 쓰인 일부 동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8. 한글의 표기가 같아도 뜻이 다르거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이를 포함하는 문형이 같아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9. 한글의 표기와 뜻이 같아도 수화에 의한 표현이 다른 단어는 이를 포함하는 문형이 같아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10. 문형이 같고 한글의 표기와 뜻이 같은 단어라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다르면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의 제시 방법

1. 표제어의 표기는 한글로 하였다.
2.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초성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2) 중성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3) 종성

ㄱ ㄲ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3. 한글의 표기가 같고 뜻이 다른 표제어는 어깨번호를 붙여 그 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한글의 표기와 뜻은 같으나 수화에 의한 표현이 다른 표제어는 표현별로 ①, ②와 같이 번호를 붙여 그 순으로 배열하였다.

뜻풀이

1. 표제어가 단어이면 뜻풀이를 하고, 구나 절이면 뜻풀이를 하지 않았다.
2. 표제어의 뜻풀이는 한국어의 뜻풀이가 아니라 한국수화의 뜻풀이다. 그러나 표제어의 뜻풀이는 한국어 뜻풀이와 일치하거나 그 뜻풀이의 일부와 일치한다.
3. 뜻풀이는 짧고 간결하게 하고자 하였다.
4. 다의어의 뜻풀이는 의미별로 ①, ②와 같이 나누었다.

한국수화 문장의 그림

1. 수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그림과 한글로 표시하였다.
2. 두 개 이상의 그림으로 표시되는 단어는 그림과 그림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표시하였다.

한국수화 문장의 번역문

1. 수화의 번역문은 대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2. 수화의 번역은 한국어로 하였다.

한국수화 문형

1. 수화 문형은【 】안에 제시하였다.
2. 수화 문형은 문장 성분을 덧셈표로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3. 문장 성분 뒤에는 문장 성분의 재료를 소괄호나 중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4. 문장 성분의 재료인 종결 표정은 그 앞에 빗금을 넣고, 그 뒤에 표정의 종류를 소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5. 문장 성분의 재료인 시제 표지는 그 뒤에 '시제: 시제 표시 단어'를 소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6. 표제어가 들어있는 '구'나 '절'은 이를 구성하는 품사로 분석하여 '구'나 '절' 뒤에 등호를 앞세워 제시하였다.

한국수화 문형사전에 쓰인 기호

① ② … 뜻풀이가 달라진 경우
① ② … 수화의 표현이 달라진 경우
- 단어를 구성하는 그림의 붙임 표시
[ ] 수화 문장의 한국어 번역문 표시
【 】 수화의 문형 표시
+ 수화 단어의 연결 표시
+ 문장 성분의 연결 표시
( ) { } 수화 문장 성분의 재료 표시
/ 서술어의 재료와 종결 표정의 합성 표시
( ) 종결 표정의 종류 표시
( ) 시제 표지의 종류 표시
: 시제 표지 단어 앞에
= 구나 절을 구성하는 품사의 모임 앞에
주 가상 주어 표시
목 가상 목적어 표시
예 용례 표시